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1주일(예수 성심 성월)
제32권 29호(나해) 2012.6.17

[묵상]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된 농부는
어떻게 그리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신비한 땅과 같은
하느님의 나라, 머리로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만큼 성장하듯
보잘 것 없어 보였던 시작이었지만
온 세상을 품고도 넉넉하게 남게 될
하느님의 나라, 말로만 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많은 비유로 설명되어진다 해도
저희들이 깨닫고 표현하기에는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뿌려지게 될 은총의 씨앗은
보잘 것 없는 저희가 성장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직접 인도해주시고
모든 것을 직접 풀이해주시기에
결코 깨닫지 못할 나라가 아닙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평회 (장래시 연락처) : (310) 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에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동길 바오로,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주 일	(연)김동길 바오로, 이재우 마티아, 박영준 안토니오, 이사렘, 이태수 카타리나, 이상일 요셉, 고준희 제임스, 최금옥 말리나, 김영자, 채준호 마티아, 김덕희 세실리아 & 김인희 빌립보, 홍정숙 엘리사벳,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이병찬 & 황득수, 정진영 & 윤희중, 윤홍중 & 김봉희
낮 미사	(생)유제형 요셉, 임종택 베르나르도 & 임수연 에메리따, 신대철 알베르토, 유현자 안나,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자들, 이형삼 요셉, 윤희동 안토니오 & 윤세라피나 가정, 이종민 요셉, 이마태오 & 이마르코,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녜스, 김병숙, 이근모 마리노 & 이혜자 리드비나, 김하서 마리아, 신대진 베드로, 정동호 하상바오로 & 올리아 & 애나 & 린다 & 엘리스, 타카하시 & 나경흠 데보라, 조영우 스테파노 & 엄지선 레지나,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데레사, 박효진 안젤라, 이상을 바실리오 사제,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Ezekiel) 17,22-24

화답송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 님 당신을 찬미하오 니 좋기도 하옵니 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늘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제 2독서 코린토 2서(2 Corinthians) 5,6-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복 음 마르코(St. Mark) 4,26-34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모든 날, 주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50	250	313
봉헌	257	257	268
성체	309	309	281
파전	311	311	31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구약과 신약의 관계

40). 신학자들과 목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단일성이라는 배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약 자체가 구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유다 백성의 성서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신약은 구약과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자주 구약의 단락들을 암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명시적으로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고 논증을 위하여 구약을 사용함으로써 권위를 인정합니다. 구약의 본문에 근거한 논증은 신약성경 안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주론보다 상위의 결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넷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폐기될 수 없는 성경” (요한 10,35) 이라고 단언하시고, 바오로 성인은 특히 구약의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유효하다고 밝힙니다.(로마15,4; 1코린 10,11 참조)

또한 우리는,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으며 성지(이스라엘 - 역자 주)는 교회의 모태가 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구약 성경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교는 늘 이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교 교의는 언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대립시키는 온갖 형태의 마르키온 주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스스로 구약과 일치한다는 점을 단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유다 백성의 성서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취라는 개념이 복합적인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구약 성경 계시와의 연속성이라는 근본적 측면과 단절의 측면, 그리고 성취와 극복이라는 측면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구약성경의 희생 제사와 지향에서 연속성을 지니지만 예언자들의 수많은 예언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로써 전례 없는 완전함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은 실상 제도적인 측면과 예언적인 측면 사이의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성경의 예언과 예형적인 요소들에 - 그러나 예견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 온전히 부합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도들에 비하여 분명한 불연속성의 측면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작은 것이 크다.

‘세코이아(Sequoia)’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은 이천 년을 넘게 살며, 높이는 80미터, 둘레는 30미터, 무게는 1,3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잎은 무척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거무튀튀한 나무에서 형형색색의 꽃과 어린 연두색의 새순이 터져 나오고 가을이 되면 달콤한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이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지만 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미소, 작은 선행, 작은 관심, 작은 용서 같은 것들은 점점 자라나 하느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같이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무관심, 작은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들도 점점 자라나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개 은하의 엄청난 우주가 존재하고,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변하고, 봄이면 팝콘처럼 벼가 터져 나오고, 웅알이를 하던 아기가 건장한 청년이 되고,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희색빛 노인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모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만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보고 갑자기 큰 나무가 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한 사람의 슈퍼맨이 갑자기 세우는 것도, 제도화 법으로 인간을 통제함으로써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꽃이 피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활짝 피듯이 하느님 나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이룩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의 작은 마음, 작은 선행, 고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는, 조금증을 버리고,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마음들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누군가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들의 작은 사랑들도 모이고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나 재물의 힘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느님이 뒤에 계신 사랑의 힘은 별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진정한 힘은 그 사랑의 힘인데 말입니다. 돈오점수(頓悟點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욕심마저 버리고 성실히 수행할 때 문득 깨달음이 오듯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하느님 나라를 받치는 커다란 사랑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말씀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 베네딕도 16세 교황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요셉회 (아버지날)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 Happy Father's Day! ♥

6월 셋째 주 일인 오늘은 아버지날 (Father's Day) 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 마다 얹고 늘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과, 신부님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 **본당 ME 세어킹**
- 일시 : 6월17일(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유석영 레오 & 혜정 로사 가정
 - 문의 : 본당 ME 대표 정동호 하상바로 & 병욱 올리아
☎(310)789-9055
- ◆ **FIAT리더십 트레이닝 피정에 주일학교교사 4명 참가**
- 일시 : 6월21일(목)~24일(주일)
 - 장소 : 애나하임 성 토마스한인천주교회
 - 참가자 : 조나탄 고, 마이클 서, 보나 오, 린다 정
 -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앵커리지 한인성당 성전건립 기금모금을 위한 특강**
- 일시 : 6월23, 24일 특전미사와 주일미사
 - 강론 : 안광성 신부(청주교구 소속)
 - 교우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신영제자 첫 고해성사**
- 일시 : 6월27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후
 - 대상 :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에 세례를 받은 분들
- ◆ **2012년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을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하상만 신부

- ◆ **어린이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목요일 미사(오후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남녀 어린이
 - 문의 : 황선흥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오늘 주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니 학부모님 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염수정(안드레아)대주교의 신임 서울대교구장 착좌미사**
- 일시 : 6월25일(월) 오후 2시
 - 장소 : 명동대성당
 - 한편 지난 1998년 6월, 제13대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4년간 서울대교구장직을 역임하신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의 이임 감사미사는 6월15일(금)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 ◆ **한국 가톨릭대학 ‘해외자녀들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
- 일시 : 7월1일~27일(4주)
 - 주최 : 한국가톨릭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 대상 : 해외교포 자녀 및 외국학생들의 한류체험
 - 장소 : 김수환추기경 국제센터
 - 신청 : www.catholic.ac.kr/~cukcamp
 - 문의 : 이바오로 신부 ☎(202)965-1610

◆ **친교자리 (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17일(주일): 토런스 북 1반(김치콩나물밥 \$3)
- 6월24일(주일): P.V. 1반(오이냉채콩나물밥 \$3)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김영숙 김현기 김배안 이재이 정병훈	순경속 영현열 배재단 이남현 이재용 정병훈	구자운 김원모 원충철 문송기 송기중 안중연 이명자 이희영 영영영	권진호 김원기 민송남 민송영 송영미 양관경 이영순 영석영	만은기 태형준 권민송 김민송 지우정 지우정 지우정 지우정	광상준 김일박 선박신 일박신 준경유 근유인 근유인 근유인	자선준 광상준 선박신 박신유 준경유 근유인 근유인 근유인	우학진 김박신 현영일 현영일 현영일 현영일 현영일 현영일	수현화 박현화 현영길 현영길 현영길 현영길 현영길 현영길	김동호 정동호 정동호 정동호 정동호 정동호 정동호 정동호	한장환 한장환 한장환 한장환 한장환 한장환 한장환 한장환	합계 : \$5,915
	미사헌금 : \$3,125											

성전헌금	강미순 김원송 김송이 김지임 한장환	순모철 원지선 송순 송순 한장환	구원영 김영진 신유정 신유정	운호준 원영진 원영진	권진현 김현남 신규정	열숙화 현현숙 현현숙	권문안 안명동 이정호	태한만 재명호	김민이 안우희	광남연 종우성 이원희	자남연 연우성 원희	대형양 영희	김민이 안우희	우관영 관희	대영희 관희	합계 : \$3,190
	주보광고후원 : \$250															

감사헌금 : 정미영															
------------	--	--	--	--	--	--	--	--	--	--	--	--	--	--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2차접수부터 등록금이 인상되니 서둘러 주시기바랍니다.

- 1차접수: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8월5일부터(\$140, \$120, \$100, 무료)
- 자모회비: \$40(가정당)

한국학교 소식

- 2012-2013학년도 한국학교 등록: 오늘 주일(17일)부터 학생미사와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 여름 SAT II 한국어 특별반 모집
- * 대상: 현재 8학년 이상
- * 수업시작: 7월1일(주일) 학생미사후 8주간 계속
- * 등록금: 새학기 등록자 무료
- 문의: 김본경 율리아 한국학교장 ☎(310)713-2669

주일학교 서머캠프 신청마감 바둑!

- 일시: 6월29일(금)~7월1일(주일) *장소: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70(no refund)

남가주 소식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제3학기 과정

- 일시: 7월13일(금)~15일(주일) 오후 6시50분-10시
- 주제: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장소: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 수강료: \$50(1일 \$20)
- 등록문의 및 접수: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최대제 신부(성아그네스성당 주임)의 커피 강의

- 일시: 7월9일(월) 낮1시, 7월12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수강료: \$50(각반 15명 씩)
- 신청: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323)731-4433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진아네스 ☎(213)507-1144,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노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제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율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6/8(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8~9 빅베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서영주 시몬 357-7829 6/15(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6/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6/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현석주 아오스딩 594-9472 6/16(토)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6/14(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6/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화) 오후 8시 반미사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제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6328 6/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544-4807 6/2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213-369-0687 6/8(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6/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2012년 마감회기)	오후 1시
-----------------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학교 1학년인 트레버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과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레버는 진지하게 고민한 후 '도움 주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다. 그가 생각해 낸 '도움 주기'(pay it forward)는 매우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1명이 3명의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면서 그들에게도 3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1단계에서는 1명이 3명에게 도움을, 2단계가 되면 3명이 9명에게, 3단계는 9명이 27명에게,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칠수록 그 수는 점점 증가하여 마침내 세상을 바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와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용기와 노력은 매번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도움 주기는 도움을 받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LA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트레버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 한 학생의 칼에 찔리게 됩니다. 그의 '도움 주기'과제는 무사히 끝났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전국 각지에서 트레버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렬을 배경으로 끝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세상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큰 가치를 뽐내 하늘의 새들을 깃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트레버의 '도움 주기'는 한 마리 작은 나비의 날갯짓(작은 겨자씨)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날갯짓이 함께하면서 어느새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태풍(하느님 나라)이 됩니다.(마르 4, 30~32참조)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선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과거에 비해 더욱 가까워지라도 심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확대되지 못하고 그 틀 안에 묶여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나눔입니다. 나눔 안에서 사랑은 확장되고 풍성해지며 완성됩니다.(루카 6, 32~35참조) 트레버는 세상을 바꾸는 것(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다고 말합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갚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갚으라고 말하십시오.(Don't pay it back, but pay it forward)"

◆박규환 안젤로 신부 / 부산교구 임궁성당 주임

진통제와 며칠 전 일이다. 한밤중에 머리가 송곳으로
비타민 찌르는 듯 아파 잠에서 깼다. 잇을 만하면
도지는 편두통이다. 빨리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그날 따라 머리맡에 놓아두는 약통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천근만근 무거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거실로
나와 겨우 다른 진통제를 찾아 먹었다. '아, 30분만 참으면 이
두통이 가라앉겠지.'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와 보니 글썽
종합비타민 약통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어이가 없었다. 어제
먹은 게 두통약이 아니라 비타민이었다! 그럼 어제밤 그 약 먹고
두통이 말끔히 사라져 폭 잘 수 있었던 건 어찌 된 거지?
비타민에 진통 효과가 있을 리 없으니 이게 소위 플라시보
효과인가 보다. 약효가 전혀 없는 젓당이나 증류수 등을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주어도 그걸 치료 약이라고 믿는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심리학적 효과 말이다.

문득,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알약이 병을
낫게 할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작지만 확고한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시작일 거다.

예수님도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도 옮길
것이라고 하셨다.(마태 17,20 참조)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콩알만 하다고 하듯, 중동지방에서는 작디작은 것을 겨자씨에
비유한다고 한다. 얼마 전 성지순례를 다녀온 친구에게 작은
봉지에 든 겨자씨 선물을 받았는데 크기가 들깨보다 작았다. 그
봉지에는 이런 뜨겁한 글귀가 쓰여 있었다. "당신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 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얘기를 하다 보니 뜬금없이 일전에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
'인디애나 존스 - 최후의 성전'이 생각난다. 천신만고 끝에
성배를 찾은 인디애나 존스가 500미터 정도 떨어진 절벽에서
맞은 편 절벽으로 건너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어떤 믿음이
그를 움직였는지 그가 천 길 낭떠러지 허공에 한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거짓말같이 발밑에 다리가 생겨났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계약의 궤를 메고 요르단
강을 건너는 장면과 오버랩 되었다.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가 사제들과 언덕까지
차오른 요르단 강을 건너려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길이 열리던 그
장면 말이다.(여호 3,1-17) 여호수아 역시 길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아니라 강에 한발 들여놓았을 때에 비로소 길이
열렸던 것이다.

한발을 내딛으면 하느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여호수아의
목숨을 건 믿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다. 부러운 믿음이다.
그러나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믿음이다. 내 어찌 그런 믿음을
바랄 수 있겠는가? 나는 친구의 선물 봉투에 쓰여 있는 대로
그저 겨자씨만 한 믿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한 달에 1mm, 아니 일 년에
1mm라도 꾸준히 자랐으면 좋겠다. 며칠 전, 진통 효과가 전혀
없는 비타민을 먹고도 최대의 진통 효과를 본 걸 보면, 작기는
하지만 내게 무언가를 굳게 믿는 '믿음의 뿌리'가 있기는 한 것
같다. 다행이다.

◆한비아 비아 /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